

벤투 감독 없이 치르는 마지막 포르투갈전...우려 속 희망

코너킥 안 준 심판에 항의하다 레드카드 받아
포르투갈전 벤치 못 앉아...하프타임 팀토크 불가
1998 대회 차범근 경질 후 벨기에전 무승부 거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체수단 활용 거론돼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가나전 막판 퇴장을 당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벤투 감독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전에서 경기 종료 후술이 올린 뒤 그라운드로 뛰어나가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추가 시간 중 가나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져 경기를 지연시킨 만큼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 적용돼야 했지만 엔서터 테일러(잉글랜드) 심판은 한국에 코너킥 공격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자 벤투 감독은 그라운드로 들어가 테일러 심판 면전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음에도 테일러 심판은 빨간 카

드를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등 선수들이 테일러 심판에게 항의하다 경고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벤투 감독이 일부러 더 강하게 대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수가 받은 경고는 페어플레이 점수에 반영돼 향후 조별리그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감독이 받은 경고나 퇴장은 순위에 영향을 없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땠든 벤투 감독은 오는 3일 새벽 0시에 열리는 포르투갈전을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지켜보게 됐다. 무전 등으로도 팀과 연락하지 못하며 하프타임 라커룸에도 출입할 수 없다.

큰 틀의 전술은 경기 전에 확정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벤투 감독이 없을 경우 득점이나 실점, 선수 부상 등에 따른 임기응변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수들에게 투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하프타임 지시도 불가능해졌다.

선수들은 벤투 감독 부재에 우려를 표했다. 손흥민은 가나전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님이 경기장에 못 앉아 계시는 것은 팀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분명히 잘 말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이행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인도 "당연히 벤치에 감독님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때도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선수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투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당시 차범근 감독이 2차전 네덜란드전 0-5 참패로 경질된 후 심기일전한 대표팀은 마지막 벨기에전에서 유상철의 동점골로 1-1로 비긴 바 있다.

특새를 공략해 작전 지시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까지 국제축구연맹이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전에 관중석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작전을 지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카타르 현지에서 있는 이 부회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기 전에 다 만들어지



28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2대 3으로 패한 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주심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다른 것은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도 사실은 약간씩 감독이 관여를 하기도 한다"며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주는 것까

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 어떤 경우는 벤치에 없어도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짚었다.

뉴스스

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기용 요구 ↑ ...“차이 증명할 수 있어”



28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이강인이 패스하고 있다.

이강인, 교체 투입 1분 만에 만회골 도와
날카로운 프리킥 가나 문전 위협하기도
美 ESPN “가장 큰 문제 90분 주저지느냐”
이강인 본인은 “감독님 결정 100% 신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음달 3일 새벽 0시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반드시 이겨야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 공격력이 뛰어난 이강인(마요르카)을 선발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0-2로 뒤진 후반 12분 권창훈 대신 교체 투

입된 이강인은 1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공을 뺏어 크로스를 올렸고 이는 조규성의 헤더골로 연결됐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자신감을 찾은 한국은 후반 16분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조규성은 김진수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이강인은 2-3으로 뒤진 후반 29분에는 골문 구석으로 가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가나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펄쩍 날자 일각에서는 이강인을 좀 더 일찍 투입하거나 아예 선발로 투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 이날 전반전 초반 가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코너킥을 7개나 얻어냈다. 하지만 키커 손흥민이 올린 공은 이번이 가나에 걸렸고 수많은 득점 기회가 날아갔다. 이후 한국은 가나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공지에 몰렸다.

이 때문에 킥이 정확한 이강인이 선발로 뛰었다면 코너킥 기회에서 더 좋은 공을 문전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강인을 키커로 써 골을 넣었다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이강인 90분이었으면 한국의 가나전 패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강인의 가나전 활약을 조명했다.

ESPN은 "이강인은 확실히 자기 기술을 보여줬고 월드컵 무대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꼭 이겨야 하는 금요일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강인에게 그렇게 할 90분의 시간이 주저지느냐 마느냐"라고 꼬집었다.

정작 이강인 본인은 선발 출전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강인은 가나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발로 뛰고 안 뛰고는 감독님의 결정이다. 감독님 결정에 100% 신뢰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6강에 진출하려면 포르투갈전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둬야 한다. 벤투 감독이 마지막 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르투갈전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리디아 고, 5년6개월만에 1위 탈환...역대 최장기간 부활

고진영, 5위로 밀려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무려 5년 6개월 17일 만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9일(한국시간) 여자골프 세계랭킹이 발표됐다.

리디아 고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무려 85주 연속 1위를 지켰다. 이후 1위에서 물러난 리디아 고는 5년 6개월여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는 종전 역대 최장 기간 1위 탈환 기록

(박인비 2년 5개월 29일)을 갈아치운 것이다.

리디아 고는 올해 3승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하면서 벨리 코다(미국)를 2위로 밀어냈다.

아타야 티티콜(태국)은 3위, 호주교포 이민지는 4위에 자리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고진영(27)은 어느덧 5위까지 밀려났다.

전인지(28)는 8위, 김효주(27)는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0일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FA 포기한 이재원의 진심 “SSG에 남고 싶은 마음 컸다”

FA 자격 얻었으나 권리 행사 포기

“구단에 부담주고 싶지 않았어요. SSG 랜더스에 남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포수 이재원(34·SSG)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구단에 뜻을 전달하고, 내년 연봉에 대해서도 위임했다.

시장에서 포수는 귀한 자원이자. 이번 FA 시장에 주전급 포수 4명이 나온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에 FA 계약을 통해 이적한 양의지(두산 베이스), 유강남(롯데 자이언츠), 박동원(LG 트

윈스), 박세혁(NC 다이노스)의 몸값이 343억 원에 달한 것도 포수가 워낙 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원은 '우승 포수'라는 프리미엄에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인천과 SSG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이재원은 “어딜 가겠나. 부진하기도 했지만, 이 팀에 남고 싶은 마음이 컸다. 훌훌하게 결정했다”고 했다.

이재원은 인천에서 나고 자라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인천송의초, 상인천중을 거쳐 야구 명문 인천고를 졸업했다. 그는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인천 연고 팀인 SK 와이번스(현 SSG)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 무대를 밟은 후 한 팀에서만 뛰었다. 2018시즌 뒤 처음 FA가 됐을 때에도 잔류를 택했다. 주장 완장도 3번이나 썼다.

“구단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재원은 짧은 고민 끝에 FA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후 지난 11일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연 자리에서 정중히 SSG 구단주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재원은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기도 전이었다. 축송회 자리에서 구단주님께 FA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 무조건 남고 싶다고 했다”며 “구단주님이 '잘 생각했다.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 뒷 이야기를 소개했다.



김형실 감독, 페퍼저축은행 성적 부진 책임 '사퇴'

“국·내외서 후임 감독 물색...당분간 이경수 코치 감독대행”

프로배구 여부부 페퍼저축은행의 김형실 감독이 이번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11월29일자로 김형실 감독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2022시즌 신생팀으로 출범한 페퍼저축은행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3승 28패로 최하위에 머물

렀던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10전 전패를 당해 고개를 떨궜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차기 감독 후임을 찾기 시작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이경수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끌 예정이다”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스